

말기 신질환 환자에서 Gabapentin 투여 후 발생한 간대성 근경련 3례

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내과학교실

박성원 · 조소영 · 나현희 · 고행일

Gabapentin-induced Myoclonus in Three Patients with End-stage Renal Disease

Sung Won Park, So Young Jo, Hyun Hee Na, Haeng Il Koh

Inje university Medical School Seoul Paik Hospita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

배경 : 간대성 근경련 (Myoclonus)은 근육의 불규칙적, 비대칭적으로 쇼크와 비슷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. Gabapentin은 신경전달물질인 gamma-aminobutyric acid (GABA)의 유사체로 간질의 치료, 급만성 통증조절 및 신경병증 치료에 이용되며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. 저자들은 혈액 투석 중인 말기 신질환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치료 목적으로 Gabapentin을 투여 후 간대성 근경련을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 :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57세 여자가 양측 하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Gabapentin (900 mg/일)을 한달간 처방 하였다. 이 후 휴식 시에 양측상지의 간대성 근경련이 발생하였고 간대성 근경련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찾지 못하던 중 Gabapentin 을 끊고 2일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.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81세 여자가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의심되는 양하지 저림, 이상감각 및 통증을 호소하여 Gabapentin (600 mg/일) 을 2주간 처방 하였다. 이 후 양측 상지의 간대성 근경련을 호소하였고 Gabapentin을 중단하고 3일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. 당뇨병성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투석 중인 80세 남자가 양측 하지의 감각소실, 양측 상지의 저림 증상이 있어 신경전도 검사 후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Gabapentin (300 mg/일)을 한달간 사용하였다.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양측 상지의 간대성 근경련을 보여 Gabapentin 을 끊고 증상이 호전되었다.

고찰 : 혈액투석을 하는 말기 신부전의 환자의 경우 Gabapentin 초회량은 하루 300 mg 이하로 투여를 권하며 증상호전이 없으면 용량을 증량하도록 하고 있다. 본 예의 경우 초회량에서 시작하여 신경병증의 호전이 없어 용량을 증량하던 중 간대성 근경련을 경험하였다. 본 예에서 보듯이 고령의 혈액투석환자에서 Gabapentin의 용량에 관계없이, 복용 기간에 관계없이 간대성 근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 사용 후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
Key Words : 간대성 근경련, 혈액투석, Gabapentin
Myoclonus, Hemodialysis, Gabapentin